

지역 소식통

고창군, 시군대표 전통발효 식품 마케팅 지원사업 선정

고창군(군수 유기상)은 지난 15일 전라북도에서 주관한 '2021년 전라북도 시군대표 전통발효식품 비대면 마케팅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소비 트렌드에 발맞추어 시군 대표 전통·발효 식품의 비대면 마케팅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고창군은 전략산업인 발효식품 부문으로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되었다.

브랜드까지 제고를 위한 홍보 동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온라인 쇼핑물 판촉지원 등 관내 식초 농가 및 업체의 비대면 마케팅에 총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영운 농어촌식품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고창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농산물로 만든 발효식품 홍보·마케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유진섭 정읍시장은 지난 14일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 정착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참여자가 다음 참여자를 SNS를 통해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영록 정읍경찰서장의 지명으로 이번 챌린지에 참여하게 된 유 시장은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구호 피켓을 든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실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실천을 당부했다.

이어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운준병 국회의원, 김수봉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장, 진남희 녹색어머니연합회 정읍시지회 회장을 지명하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유관리 고분군 백제역사 조명

부안군, 학술세미나 개최... '황혈석석실분' 문화재 지정의 가치 규명

전북도(도지사 송하진)와 부안군(군수 권익현)이 '전북역사 재조명 백제문화유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주최하고, 조선문화유산연구원이 주관하는 '부안 유관리 고분군의 역사적 가치와 활용방안 학술세미나'가 지난 14일 부안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아래에 열렸다.



지난 14일 부안 유관리 고분군의 역사적 가치와 활용방안 학술세미나가 부안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부안 유관리 고분군은 부안군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백제 황혈석석실분으로, 그동안 발굴조사를 통해 고분의 형태 및 축조 방법 등을 파악해 전라북도 백제 사비기 고분 문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부안 유관리 고분군의 학술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에 대한 보존 정비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문화재 지정의 가치를 규명하기 위해 개최됐다.

먼저 이형원(조선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의 '부안 유관리 고분군의 특징과 고고학적 가치', 김규정(전북문화재연구원 원장)의 '정읍 은선리 고분의 구조와 특징', 김낙중(전북대학교 교수)의 '전북 서부지역 백제 황혈석석실분의 전개과정과 부안 유관리 고분군의 의미', 최홍선(국립익산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의 '부안 유관리 고분군의 보존 정비와 활용방안'까지 다각적인 주제의 연구발표를 했다.

또한 주제발표가 마무리된 뒤에는 최완규 원광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김종업(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전상화(전주문화유산연구원 학예연구실 제1부장), 이문형(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조영일(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등 백제문화권 연구에 권위 있는 학자들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하였다.

이에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 학술대회가 부안 유관리 고분군의 가치를 널리 알려 부안이 백제 역사문화에서 중요한 곳임을 확인하고 이를 집중 조명하여 향후 문화재 지정에 초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는 임산물 체험단지 일원에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한다.

정읍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총 사업비 52억원 투입...2023년 완공 예정 쌍암동 임산물 체험단지 내 작업장 등 갖춰

정읍시는 임산물 체험단지 일원에 친환경 목재 이용 활성화와 목재 문화·교육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한다.

목재문화체험장은 쌍암동 54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52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타당성 컨설팅을 거쳐 2021년 예산을 수립하여 1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중이며 2023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입시설로는 목공예공방, 목재 DIY 작업실, 목재전시홍보관, 목재영상실 등으로 초급부터 고급과정에 이르는 다양한 목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목재문화체험장이 들어서는 임산물 체험단지는 차랑문화관, 차랑다원, 임산물 향기온실이 기 조성되어 있으며, 주변에 내장산문화관광, 국민여가캠핑장, 천사하이로즈 등이 인접해 있어 체험관광 명소로 각광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을 통해 국산 목재 이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냉해 피해 농가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할 것"

박경숙 전북농기원장, 부안군 시설감자 냉해 피해 현장 방문

박경숙 전북농업기술원장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지속된 한파와 폭설로 냉해 피해를 받은 부안지역 시설하우스 감자재배 현장을 찾아 피해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피해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시설감자 냉해 피해는 지난 8~9일 갑작스런 온도 저하(-17C)로 인해 부안지역 시설감자 전체 면적(142ha)의 31%인 약 44ha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안감자는 지난해 110억원의 소득을 올려 동진·계화면 농가의 주 소득원이었던 만큼 농가들에게 큰 시름을 안겨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농협과 연계한 협력사업 추진과 재해보험 적용 등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박경숙 원장은 "이번 냉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상재해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해조기경보시스템을 농가에 신속히 제공하고 수요자 맞춤형 연구를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쌀 경쟁력제고사업 신청

부안군은 2021년 쌀 경쟁력제고사업 신청 접수를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하고 쌀 품질 향상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지역농협 등을 대상으로 소규모 육묘장 2동, 공동육묘장 시설개보수 4동, 농업용 방제드론 3대, 채종포단지 16ha, 집진기 42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신규로 지원하는 공동육묘장 시설개보수 지원사업은 지원 후 5년 이상 경과해 노후화된 육묘장을 개보수하는 사업이다. 또 곡물건조기에서 발생하는 분진 등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집진기 지원사업은 곡물건조기 구입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해 분진 발생에 따른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전직원 총출동 누수관 찾기 나서

최근 초강력 한파의 후유증으로 고창군이 물 부족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군청 공무원이 총출동해 누수관 찾기에 나섰다.

지난 15일 고창군상하수도사업소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새 9개소 배수지(고창, 고수, 무장, 해리, 대산, 흥덕, 아산, 상하, 석정)의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었다. 지난 6일 배수지 일일 사용량 총합은 2만3517m³이었다. 하지만 9일 2만7664m³, 12일 3만2380m³로 급증했다.

사업소는 최근 기록적인 한파에 따른 배수관 동파와 빈집 등 내부 누수로 유출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고창군의 최저기온은 영하 17C도로 기상관측이래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군은 현재 상수도 점검 대행업체와 계량기 점검원 등을 동원해 상수도관

동파여부와 누수지역을 확인 중에 있다. 하지만 빈집이 많고 주택이 산재한 농촌 특성상 빠른 시일내 누수지역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도 15일 전 공무원 일제출장(공무원 1/2이상)을 지시하는 등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이날 일제출장에 나선 공무원들은 이장 동행하에 전세대 급수관, 계량기, 수도꼭지의 파손·과열·밸브 불량 여부를 꼼꼼히 살폈다.

또 수도계량기 동파방지를 위해 열어 놓은 수도꼭지를 잠그는 등 물 절약을 홍보했다.

고창군상하수도 사업소 관계자는 "상수도 급수가 빠른 시일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고 있다"며 "지역내 가정과 기업체에서도 절수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을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